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40 호 현대불교
2021년 5월 12일(음 4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이 묘법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리던 어류에 대한 얘기를 마저 끝마치겠습니다.

동해가 있으면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또 북쪽으론 압록강이 있고 또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되느냐 하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깨친다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의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검토해서 대천세계까지 치더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보림해 가면서 결국은 모든 습과 또는 체험과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자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는 것도 없지만 공부할 때에 그렇게 어디고 아니 닿는 데 없이 체험을 안 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부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어류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생이니까. 내 몸에 대한 것도, 이 몸도 중생인 거라. 그런데 선의 중생이 있고 악의 중생이 있거든. 그럼으로써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속에서 사는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는가 하면, 무정물이라든가 식물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동물들이 천차만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의 생명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물질이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다 하고 난 뒤 그때서야 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물에서 노는 생명들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지마는 안타깝게 인간의 살림살이와 삶과 그 도리가 어쩌면 그렇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모두 물에서 살면서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고 이렇게 사는 동물도 있다는 얘깁니다. 살다 살다 보니깐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 앞가림도 해야만 되는 것이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로 낳는 게 있고, 알로 낳는 게 있다는 얘깁니다. 입으로 낳는 것도 있거든. 입으로 낳아서 입에서 기르는 그러한 어류도 있다는 얘깁니다. 태로 낳는다 하는 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어라든가 이런 큰 짐승들도 그렇고 숭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태로 낳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을 때에 알을 한꺼번에 5만 마리도 낳을 수 있고 또 몇만 마리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백 마리, 3백 마리 이렇게 많은 것을 낳지만 태로 낳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나 이렇게 낳는 것처럼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쭌히 자기가 보호해서 기를 수 있고 또 아주 알을 깨뜨려서 배 속에서 길러서 나오니 얼마나 알토란 같습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배 속에서 보호해서 길러서 바로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착취당할 일도 없죠.

그런데 이 알로 낳는 거는 착취를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알로 낳아서 이렇게 뭉치 뭉치 놓는다면 또 그것을 착취해 가는 그런 고기들이 있어서 다 잡아먹거든요. 그럼 이게 몇 마리 성사를 못 보는 거죠. 고기들이 그렇게 해 가면서도 어떠한 어류는, 미꾸라지도 그렇지마는 진흙땅을 파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묘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그 에너지를 꺼내서 실로 만들어서 매달아서 천장에 모두 알들을 만들어서 요렇게 끼워 놓기도 하고 그러는 어류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절로 까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알을 싸 놓고 그냥 가는 어류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냥 낳아 놓기만 하고 그저 무심히 그렇게 돌리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또 그냥 낳아 놓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돌아가고, 또 입으로 낳는 것도 입에서 다 길러서 바로 그 물알 주머니에서 탁 터져서 나가면 새끼가 그냥 나가서 물에서 놀다가 또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입에서 다 크도록까지 길러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배에서 길러서 내놓는 거는 큰 상어 같은 거, 또는 상어뿐만 아니라 숭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내놓거든.

그런데 이런 신기한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그 사실. 우리가 가자미나 넙치 같은 거를 사다 먹죠? 여러분이 사다 먹을 때 언제나, 하치않은 그런 어류지마는 그거를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먹을 때도 그렇고 물을 입에 넣었을 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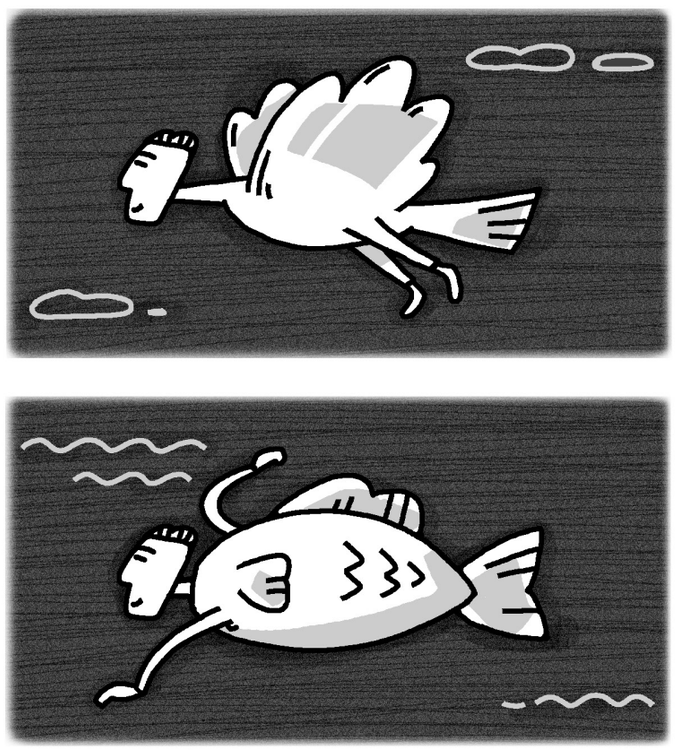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가미로 물은 나가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는 것, 또는 우리가 정맥 동맥이 통하듯이 나쁜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빼 버리고 자기가 영양 있는 것만 들여놓는 그러한 조개들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자미 눈을 가만히 보고선 왜 너는 모로 그렇게 박혔느냐 생각을 하니 그 가자미는 항상 남한테 먹히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바닥에서 내 몸을 가려서 어떡하든지 수를 써서 내 방어를 해야 할 텐데 방어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납작하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방어를 해야 할 텐데 그 모습을 바꿀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눈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 이것을 반듯하게 들면 한 눈밖에 도대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자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면, 즉 밤에는 까맣게 되고 또 낮에는 하얗게 돼야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또는 눈이 이렇게 한데로 몰려야 드러누워서도 눈으로다가 다 보지 않습니까?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깐 그러한 생각을, 자기가 부자연하니까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게 진화력입니다, 진화력! 그러니깐 그러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서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옮긴단 말입니다.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처음에 났을 때는 양쪽으로 눈이 돼 있었지마는 점점점점 가면서 그렇게 모로 딱 두 눈이 돼 있으니까 이놈의 가자미가 탁 붙어서 드러누워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그러한 방어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류도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말같이 생긴 그런 어류도 있고 또는 소같이 생긴 것도 있고, 또 용같이 생긴 것도 있고 날개가 달리고 비늘이 거꾸로 붙고, 비늘이 그냥 말도 못 하게 예전에 이무기라는 그런 용처럼 생겨서 사는 것도 있고 또는 상어도 아주 그 참, 점점점점 진화력을 가지고서 조그맸을 때부터 더 클 때까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파도에 휘달리면서도 늠름하게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진화되니까 그게 백상어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몸이 하얗게 된 것은 재주가 훌륭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진화돼서 융통성이 있으니 결국은 고래상어나 이런 거는 전부 물에서 왕이죠. 즉 말하자면 산에서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력을 튼튼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벌써 미리미리 소통을 하니까, 즉 말하자면 무전통신기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걸 통하죠. 판단도 하죠. 인간 모르는 거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속에서도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힘이 있고 차원에 따라서 힘이 없고, 이러한 어류들도 천차만별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어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푸른 상어가 있는가 하면 검은 상어가 있고 또 색색을 가진 어류도 있고 별의별,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천차만별로 생겨 있고, 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고, 재주가 훌륭한데 그 재주가 천차만별로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때에 따라서는 진화력을 가지고서 그 능력이 무쌍하다면 바로 날개가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기도 하죠. 그러니 그것은 물에서, 어류라고 하기 이전에

☞ 22면으로 계속